



강진 가우도



신안 임자도

‘섬의 날’ 앞두고 전남 ‘4色 섬’ 개발 박차

(2019년 8월 8일)

정부·전남도 섬 발전 대책 발표

전남도가 섬 발전을 위해 ‘섬해양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섬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정부는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을 검토한다.

7일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운영하는 8월 8일 ‘섬의 날’을 1년 앞두고 섬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섬 발전 추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기 위해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어촌 체험마을을 확대하는 등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마련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선착장을 확충하

전남 섬발전지원센터·정부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지속가능한 섬·살고 싶은 섬·가고 싶은 섬·발전하는 섬
여수 낭도·완도 소안도 등 전남 15곳 ‘휴가지 33섬’ 선정

고,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의료 지원을 위한 드론택배·ICT(정보통신 기술)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주민 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을 실현하기 위해 섬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활동가와 전문가, 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가고 싶은 섬’을 위해서는 관광객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등 섬 홍보를 강화한다. 33섬 가운데 전남에서는 섬으로 여수 낭도, 고흥 예도,

완도 생일도, 진도 관매도·대마도, 신안 반월박지도가, 맞섬으로는 신안 영산도가, 놀섬으로는 여수 하화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신안 임자도가, 미지의 섬으로는 고흥 연흥도, 보성 장도, 신안 병풍도, 완도 여서도 등 총 15개 섬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발전하는 섬’을 만들기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섬 정책 주무부서인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외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해 섬 발전 정책에 동반성장(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8월8일이 ‘섬의 날’로 지정됐다. 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8월8일 첫 ‘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71개 섬을 개발한다. 특히 섬 주민이 많이 사는 마을에 각종 사업을 집약적으로 투자하는 패키지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도산 안창호 일기’ 문화재 등록

완도 소안도 ‘구 당사도 등대’ 등록 예고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지낸 독립운동가다. 지난 1962년 정부에서는 안창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당시 활동상을 담은 ‘도산 안창호 일기’ <사진>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항일독립유산인 ‘도산 안창호 일기’를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7일 밝혔다.

일기 작성 시점은 1920년 1월 14일부터 8월 20일, 1921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용지에 썼으며 3책으로 구성돼 있다. 안창호 유족이 보관하다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장 민용호(1869~1922)의 의병장전 사실을 기록한 ‘관동장의록’도 문화재로 등록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근대기에 건립된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아래 사진>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콘크리트로 축조된 백색의 등대는 근대기의 건축양식 및 건축재료, 의장수법을 잘 보여주며 주변 바다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소안도 주민과 의병들이 1909년 의거를 일으킨 장소로 이후 소안도·신지도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보리, 대북제재 속 인도적 지원 지침 마련

美, 신속 지원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제재 위반 막으면서도 지원 투명성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이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

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사격하는 것을 의식한 미국의 ‘의도적 제스처’도 담긴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북한 농촌 지역의 아동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엔은 1억1000만 달러(한화 1235억8500만원)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한 아동의 영양결핍 해소와 안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2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0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 北 ‘홍역 퇴치국가’ 인증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최근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받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북한을 관할하는 WHO 동남아시아사무처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관할국 중) 북한과 동티모르 등 2개 국가가 홍역을 퇴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인도 넬리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달 2일까지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가 열린 북한과 동티모르가 자국 내의 토착화된 홍역 전파를 3년 이상 차단했다는 것을 인증했다.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받으려면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3년간 발생하지 않고, 홍역 2회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 공고

경주최씨 총렬공파보 편찬위원회에서는 파보를 발간한 지가 37년이 지남에 따라 늦은 감은 있으나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파보 1981년(신유)보를 계승 중간하고, 발간시 누락된 종원과 그 후 출생한 후손(남,여)들을 추가 등재하여 우수하고 귀중한 족보가 가보로 보존 될 수 있도록 편찬코자 합니다.

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누보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단 접수기간(2차) : 2018. 10. 31까지 (1차 2018. 7. 31)
2. 수단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남은 제적등본도 같이 첨부)
3. 접수처
- (우6161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49 (월봉빌딩 2층)
- ☎ 062)366-9427 팩스 062)366-9428
4. 연락처
- 회 장 011- 609- 7951
- 사무국장 010-8615- 5043
e-메일 lapa560@hanmail.net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원호 최 기 용
위원장 청암 최 준 동